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7. 12.(수) 11:00 < 7.13.(목) 조간 > 배포 2023. 7. 12.(수)

# 부산,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역량 강화 본격 시동!

- 정부·지자체·지역기관, 부산 기업의 통상 관련 애로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
- 부산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외교섭에서 직접 대변, 통상환경 적응 돕는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7월 12일(수)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. 부산지역 14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①대(對) 유럽연합(EU) 수산물 수출 관련 규제, ②수출목적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 관련 애로, ③목표시장별 해외지사화 사업 강화, ④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애로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.

또한,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의 12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「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」를 출범시켰다.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,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“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, 지자체·관계기관 ·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”을 강조하며, “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흑자 전환*을 가속하기 위해, 지역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최근 무역수지 추이(억 달러) : ('23.1월)-125.4→(2월)-53.3→(3월)-47.3→(4월)-27.3→(5월)-21.2→(6월)**+11.3**

| 담당 부서 |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| 책임자 | 과 장 | 홍순파 (044-203-576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신대근 (044-203-5768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참고** **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**

□ **(목적)** 부산지역 수출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지원

□ **(일시/장소)** '23. 7. 12. (수), 14:40 ~ 14:55 / 벡스코 제2전시장 125·126호

□ **(참석자)** 정부·지자체, 부산지역 12개 수출지원기관장 등 20여명

* (정부/지자체)산업부, 부산본부세관, 부산광역시

(수출지원기관)부산FTA통상진흥센터, 중진공·KOTRA·무협·무보·산단공·aT·생산성본부·표준협회 부산본부, 부산경제진흥원, (재)부산테크노파크

□ **(진행순서)**

| 시간 | 소요(분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4:40-14:45 | 5 | 참석자 소개 | 부산FTA통상진흥센터장 |
| 14:45-14:50 | 5 | 협의회 취지 설명 | 통상협정활용과장 |
| 14:50-14:55 | 5 | 업무협약(MOU) 서명 | 수출지원기관장 |